

트럼프 '향후 2-3주' 언급하며 "강하게 이란 타격할 것"

개전 33일차에 대국민 연설... "이란과 논의 계속되고 있어"

오찬서 주한미군 거론 "韓, 도움안됐다"... 파병안한테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33일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3주'는 최근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온 미군의 철수 시점으로 거론해온 기간으로, 그 기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 정권 교체"를 이뤘다"면서 "그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을 밝혔다.

다만,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블루룸에서 나와 크로스홀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해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이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해협을 지키기"를 제안했다.

그는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대략 18분간이

어졌다.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월28일 오전 1시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생방송 대국민 연설 이전에 부활절 오찬에서는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파병 요청에 아직 화답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유럽국가 가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천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대북 방어를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의 요청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부풀린 숫자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버럴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아르테미스 2호 유인 달 탐사 임무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美유인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통신문제 있었으나 정상화"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II)' 로켓이 지상을 떠나 우주로 향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II' 로켓이 1일 오후 6시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아르테미스 II'는 98m 높이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으며, 오리온에는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 등 4명이 탑승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이다. 이번 탐사의 총 비행 예정 기간은 열흘이며, 비행 거리는 110만2천400km다. /연합뉴스

주요 임무는 오리온의 생명유지 장치 등을 시험하고 우주 방사능 환경에서 사람이 받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II'는 발사 후 성공적으로 로켓 분리를 진행하고 태양광 패널 전개까지 마쳤다. 우주 탐사를 위해 지구 저궤도에서 고궤도로 이동해 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간의 통신 및 설비 문제가 발생했지만, 비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발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사 후 5분께 오리온 우주선이 통신 관련 문제를 겪었다"며 "캡 컴(지상 통신)은 우주비행사들에게 들렸지만, 우리는 잠깐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미스 II'는 지구를 돌며 준비를 마친 뒤 오리온 엔진 점화를 통해 달로 향하게 된다. /연합뉴스

알약 비만약도 경쟁 시대

일라이릴리 美 승인받아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에 이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먹는 비만치료제도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1일(현지시간) 알약 형태의 비만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오르포글리프론은 하루 1회 복용하는 알약이다. '파운데이오'(Founday)라는 제품명으로 이달 6일부터 미국에서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최저 용량 기준 월 149달러(약 22만5천원)로,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알약과 같다.

이에 따라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에서도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알약 형태의 위고비를 먼저 내놨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그동안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오젠펙과 일라이릴리의 켈비운드·마운자르가 주도해왔다. /연합뉴스

중동발 에너지난...인도, 항공유·LPG 가격 인상

스리랑카, 러시아 원유 수입물량 확정

세계 2위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국 인도가 중동발 에너지난 악화에 항공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인상했다.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국내 연료 소매업체들은 전날 항공유의 일종인 항공터빈 연료(ATF)의 kg당 가격을 10만4천927루피(약 171만4천원)로 8% 올렸다.

수도 뉴델리에서 판매하는 상업용 LPG 가스통(19kg) 가격은 2천7850루피로 10.4%나 올랐다.

로이터는 인도 국영 정유사 인디언 오일 코퍼레이션 웹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인도 민간항공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 항공부와 협의를 거친 국영 정유사들이 국내 여행비용이 국제 항공유 가격 급등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고자 부분적이고 시차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당국의 상업용 LPG 가스통 가격 인상은 중동 가격 기준인 사우디아라비아산 계약 가격이 4% 급등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런 가격 급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는 바람에 전세계 LPG 공급량의 20-30%가 발이 묶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가정용 LPG 가스통(14.2kg) 가격은 글로벌 LPG 가격 급등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엔 올리지 않았다고 민간항공부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인접국 네팔도 최근 항공유 가격을 최대 두배 이상으로 인상했다. 국영 내륙석유공사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기의 항공유 가격을 84% 올렸다.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긴 네덜은 연료 공급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의 국영 실론석유공사(CPC)는 이달과 5월에 수입할 러시아산 원유 및 정유제품 물량을 확정하고, 러시아 측과 운송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이 전달 전했다.

스리랑카는 미국 제재가 일시 해제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최근 러시아 측과 합의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